- 안개속의 풍경 — 1부 「성녀, 마녀, 그리고 기사」
  - 이전 줄거리
- 성지주일 — 지하감옥의 마녀
- 성지주일 — 밥순이
- 성지주일 — 마녀의 성전
- 성지주일 — 로고스에 대하여
- 성지주일 — 마법이 할 수 없는것

안개속의 풍경 — 1부 「성녀, 마녀, 그리고 기사」

1막 후반 발췌본 — 1_06 ~ 1_10

> 본 첨부는 장편 소설 「안개속의 풍경」 1부 「성녀, 마녀, 그리고 기사」의 1막 후반 5장(1_06 ~ 1_10) 발췌본입니다. 응모글 본문에서 다룬 AI 활용 사례의 결과물 일부를 첨부합니다. 1부 전체는 단행본 조판 기준 약 500쪽 분량입니다.

이전 줄거리

왕국 수도에서 변경 영지 바농의 이상현상 조사를 위해 파견된 성당기사 제노비오·성녀 아녜스·브루노 신부 및 수도사 일행과 호위병들. 가벼운 형식적인 출장이 될거라는 예상과 달리 영지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고 변이된 짐승의 습격으로 일행 대부분이 희생, 마을을 둘러싼 정체불명의 결계 덕에 남은 셋만이 가까스로 입성한다. 영주는 사흘 전 마을에 마녀가 나타나 지하감옥에 가둬뒀다는 소식을 전한다. 본 발췌는 그 지하감옥의 문 앞에서 시작된다.

성지주일 — 지하감옥의 마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녜스가 눈을 크게 떴다.

"마녀라고요?"

"예. 홀몸으로 여행자 복장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 마을 이곳저곳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마녀인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안에서 수상한 의식 같은 것을 치르는 것을 목격한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마 죽이지는 않으셨겠지요?"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이 그리하자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녀가 이 저주의 원흉이라는 증거도 없었고, 잡힌 뒤에도 저항 없이 오히려 자신은 이 영지를 도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지를 도우려 하고 있다라... 역시."

"하지만 수상한 외지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일단 성의 지하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사흘간 거짓말처럼 짐승들이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그 마녀가 저주를 부렸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만..."

제노비오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반대입니다. 영지를 둘러싼 숲속에 마을을 보호하는 결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만든 것일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주가 머뭇거렸다. 아녜스가 거들었다.

"그분이 잡힌 후 마을에 평화가 온 것은, 그분이 결계의 중심인 마을에 들어와 결계를 발동시켰기 때문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수상한 의식이 아마 그것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결계는 시전자와의 연결이 차단되면 결국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한시바삐 그분을 만나봐야 해요."

"여러분이 모두 그리 말씀하신다면 믿어야겠지요. 그러십시오. 오베르, 이분들을 안내해 드리게."

.

.

.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서는 퀴퀴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등불을 든 오베르의 뒤를 따라 제노비오와 아녜스가 계단을 내려갔다.

"여깁니다."

오베르가 열쇠 뭉치에서 하나를 골라 육중한 나무문을 열었다.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문 반대편 벽에 사슬로 고정된 긴 널빤지 위에 손목과 발목에 족쇄를 찬 채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여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빛이 도는 약한 곱슬머리를 어깨 아래까지 길렀고, 남자 순례자들이 입는 양모 후드 상의와 가죽바지 차림이었다. 어깨와 팔꿈치, 무릎에 덧댄 가죽은 이리저리 닳고 해져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다. 예상외로 젊어 보였다. 아무리 많아도 제노비오와 동년배 정도였다. 장시간 차림새를 가꾸지 못해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엉키고 때가 탄 구석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떠돌이 여행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흰 피부와 꽤나 미인상인 이목구비가 그 추레함을 뚫고 올라왔다.

투옥된 자 특유의 피로감은 전혀 없는 듯이 눈빛은 또렷했고 무언가를 꿰뚫어볼 듯이 날카로웠다.

"아아. 기다리고 있었어. 이 시골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해서 말이야."

감정의 동요가 없는 평온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제노비오 일행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기다렸다 하십니까?"

"수도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해지지 못한 서찰을 봤거든. 이 동네가 이 지경인 건 꿈에도 모를 테니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올 거고. 정말 도움도 안 될 정도의 실력이었다면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을 텐데, 당신들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네. 물론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은 했겠지?"

제노비오는 초면에 반말을 하는 이 여자의 건방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오던 길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혀올랐지만 지금 그것을 내색하는것은 득이 될게 없을 것이었다. 꾹 참고 말을 이어갔다.

"뛰어난 통찰력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어, 나는 뭐랄까... 그냥 지나가던 여행자야."

"어떻게 봐도 평범한 여행자는 아니십니다만..."

"뭐... 그렇겠지. 하지만 그 외엔 딱히 나를 정의내릴 만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걸. 그냥 지식을 탐구하는 여행자라고 해둘게."

이때 아녜스가 끼어들었다.

"마을 주위에 방어 결계를 쳐놓은 사람이 당신인가요?"

여자가 아녜스를 돌아보더니 잠시 훑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그걸 알아봤다면 이야기가 쉬워지겠네. 그런데 여자가 교단에서 파견 임무를 맡은 건가?"

"뭐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래. 우선 나는 격식 차리는 걸 귀찮아해서 말이야. 최대한 빠르게 얘기할게. 만나서 반갑고, 우리 여성 동지의 사연은 나중에 천천히 들려줬으면 하고, 어서 날 풀어줘. 오늘 밤 안에 결계가 깨질 거야."

"우선 당신이 우리 편이라는 걸 증명... 지금 결계가 깨진다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갇힌 지 벌써 3일이 지났어. 아마 오늘 밤 정도에 비교적 날림으로 만든 마을 북쪽부터 결계가 힘을 잃을 거야. 한쪽이 뚫리면 그 다음은 순식간이지. 그 동안 밀렸던게 한꺼번에 쳐들어올걸? 당신네들이 오늘까지 오지 않으면 안 그래도 그냥 탈옥하려던 참이었어."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여기에 잡혀있었던 건..."

"겁을 먹은 군중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지? 이 마을 신부들까지 합세해서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다짜고짜 마녀로 몰아가는데, 빠져나가려면 사람 여럿 다쳐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야 난 확정적으로 못된 마녀가 되는 거고 일은 더 꼬일 거고... 일단 얌전히 있다가 수도에서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지. 이거 빨리 안 풀어 주면 그냥 내가 풀고 나온다?"

제노비오는 오베르를 돌아보았다. 오베르는 이 급작스러운 전개가 이해되지 않는 듯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여자가 그런 오베르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손목과 발목에 묶인 족쇄를 털고 일어났다. 진작에 해체해 두었던 것이었다.

"나는 말이야, 이 마을이랑은 아무 연고도 없어. 굳이 목숨을 걸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나 혼자서는 지금처럼 결계를 유지해 주는 게 다야. 그것조차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몰라. 이곳에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게 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

아녜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죠?"

"....."

여자가 아녜스를 돌아보고 싱긋 웃었다.

"넉살이 좋은 아가씨네. 그래. 나 혼자는 무리지만 당신네들이 도와주면 저주의 원인을 찾아내서 없애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 솔직히 난 이 저주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과 그 로고스가 매우 궁금해. 나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법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가 아는 그 무엇과도 다르거든."

아녜스가 제노비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의 말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아요.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노비오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을 굳혔다.

"당신은 교단에서 인가받지 않은 이단마법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의 임무는 이단 심판이 아니라 이 마을에 퍼진 사악한 마법의 근원을 조사하고, 가능하다면 없애는 일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다르지 않으니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말이 통하는 친구라 다행이네. 이 동네 신부들처럼 꽉 막힌 인간이면 또 어쩌나 걱정했었어."

"그대의 존함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알레시아라고 해. 그리고 그 존대 좀 그만 하는 게 어때?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격식 차리는 걸 좀 귀찮아해서 말이야."

"안 그래도 초면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반말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거슬리기는 했다."

알레시아라고 자신을 밝힌 여자는 제노비오의 어체 전환에 순간 주춤했으나 이내 빙긋 웃었다.

"말을 잘 듣네?"

"너 몇 살이냐?"

순간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0.5초 정도 머리를 굴리는것 같았다. 그리고는...

"숙녀의 나이를 묻다니 실례야."

제노비오는 말문이 막혔다.

알레시아는 그 표정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노비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안 그래?"

그리고는 그를 휙 지나쳐 문밖으로 나갔다.

"크윽..."

"제노씨는 화를 참는 모습도 귀엽네요~☆ 후훗."

"시끄러워, 아녜스... 저 여자 좀 공손하게 대해줬더니 아주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쪽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했어야 했나..."

"으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무튼 그 잘난 솜씨나 한번 봐야겠어."

성지주일 — 밥순이

알레시아는 응접실의 식탁 앞에 앉아 시위를 하고 있었다.

"아아... 삼일간 먹은 거라곤 밀껍데기로 만든 빵밖에 없으니 기운이 없어..."

오베르가 조심스레 물었다.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도?"

"고기."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장시간 빈 속에 갑작스레 고기를 드시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 잘 되는 고기."

"....."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달라고 좀! 결계를 고치려면 산을 타야 한단 말이야. 마을의 은인한테 삼일 동안 지하감옥 신세를 지게 해놓고는 그거 하나 못 해줘?"

"...닭고기 스튜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아... 닭고기는 언제나 옳지. 고마워."

오베르가 주방 쪽으로 사라지자 알레시아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제노비오가 말했다.

"의외로 뒤끝이 있으신 성격 같군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참은 것뿐이지 감옥에 갇혀있었던게 기분 나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로 나한테 계속 존대할 거야?"

"뭐... 정말로 편하게 말해도 괜찮다면..."

"나 격식 차리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 텐데 말은 편하게 해."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우선 결계를 보수해서 급한 불을 꺼야지. 어느 정도 마을이 안정되면 결계 밖으로 나가서 저주의 원천이 되는 마력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저 결계를 정말 당신이 혼자 쳤다면 괴물이 된 짐승들 사이에서 산속을 돌아다녔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쉬운 일은 아니었어. 늑대 몇 마리 정도는 싸워 이길 수 있지만 더 큰 놈은 당해내기 힘들기도 하고,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피해 다녔지. 자연 속에서 눈에 띄지 않고 돌아다니는 법을 좀 알거든. 그럼에도 이렇게 큰 결계를 펼쳐 본 건 나도 처음이라 꼬박 사흘 정도 걸렸어."

"대단하군. 그런데 이렇게 큰 결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마력이 필요할 텐데, 시전자와의 연결이 사흘씩이나 차단되고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당연히 로고스에 대한 이해라곤 없이 분에 맞지 않는 힘을 휘두르는 너희 성당마법사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겠지. 하지만 다 방법이 있어."

아녜스가 입을 열었다.

"혹시 고대에 존재했다는 드루이드들의 마법인가요?"

알레시아가 조금 놀란 듯 아녜스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평범한 성당마법사가 아니구나. 아녜스라고 했던가?"

"네. 드루이드들은 자연에 깃들어 있는 마력을 빌려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 맞아. 이건 드루이드의 마법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드루이드의 전승자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 물론 그 영감님이 나를 후계자 삼고 싶어 하긴 했지만... 특정한 소속에 얽매이는 건 싫어서. 인간의 손길이 적게 닿은 이런 곳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하는 드루이드의 술법이 제일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결계를 짠 거야. 거기에 내 나름의 방식대로 응용을 좀 했지."

제노비오는 살짝 긴장했다. 왕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교단은 기존의 원시종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드루이드들도 그 와중에 희생된 세력 중 하나였다. 탄압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버린 드루이드들은 원래도 큰 세력이 아니었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에서 힘을 얻는 그들의 특성상 더욱더 힘을 잃어 갔다. 지금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한 처지였다.

그런데 이 알레시아라는 여자는 그 전승자에게 마법을 배운 인물이었다. 교단에 좋은 감정을 품고 있을 리가 없었다. 정말 이 여자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제노비오는 일단 화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결계를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너희들 하기 나름이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오늘 안에 끝나고, 도움도 안 되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면 사흘도 넘게 걸릴 수도?"

제노비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주겠는데, 우린 네 부하가 아니야."

"너야말로 착각하고 있어서 지적해주겠는데, 난 대장놀이 같은 건 관심도 없어. 너희 중에 여기서 이 마을의 상황을 나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어? 지형은 어떠한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는 것뿐이야. 이의가 있다면 지적해줘."

"...이의는 없다만 당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화술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어."

"노력 중이긴 한데 잘 안 되네.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인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이리 된 거니까 좀 봐줘."

"답답한 인간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굴 지칭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최대한 간단히 말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험상 너희 교단놈들은 거의 다 포함되더군. 당장 여기서도 분명 내가 이 마을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신부라는 작자들이 날 무턱대고 마녀로 몰아가잖아?"

"...그야 교단에서는 성당마법 외에 인가받지 않은 마법은 금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러니까 왜? 금지하는 이유가 뭔데?"

"사악한 용도로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마치 그 인가받았다는 성당마법은 사악한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제노비오가 잠시 말문이 막히려던 찰나 오베르와 시종 몇 명이 음식을 가져왔다.

"마침 잘 됐네, 배고프니까 논쟁은 잠시 미루자."

알레시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시종이 그릇에 덜어준 닭고기 스튜를 굉장한 속도로 흡입하기 시작했다. 그 먹는 모습은 뭐랄까, 씹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예법에 맞게 식기를 쓰는 모습은 분명 식사예절을 잘 아는 것으로 보였지만, 동작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두 배 정도이어서 예의가 있는데 예의가 없는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노비오와 아녜스까지 잊었던 허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었다. 오베르가 그런 둘을 돌아보며 음식을 권했다.

"제노비오님과 아녜스님도 시장하실 텐데 요기를 하시지요."

"아... 그렇다면 저희도..."

"감사합니다!~"

성지주일 — 마녀의 성전

알레시아는 의자에 거의 뒤로 기대 누워 식후의 만족감을 즐기고 있었다.

"역시 포만감이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말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식사를 채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다.

"늑대들이 습격해 옵니다! 마을 북쪽입니다!"

알레시아가 중얼거렸다.

"하... 그래도 내일까지는 버틸 줄 알았는데... 귀찮게 됐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덧붙였다.

"남은 건 갔다 와서 먹지. 시간이 없어."

"네!~☆"

아녜스도 일어나 그녀를 따랐다. 제노비오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녜스의 친화력은 다시 봐도... 하, 모르겠다."

.

.

.

성곽 위에는 이미 공포가 짙게 퍼져 있었다.

마을 남자들이 저편 숲의 경계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중 절반은 창과 단검등 그럴듯한 무기를 쥐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낫과 곡괭이였다.

제노비오가 성벽 위로 올라서는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손에 든 낫을 고쳐 쥐다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리가 퍽 크게 났다.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고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떨어진 낫을 집어 들었다.

숲의 경계에서 족히 100마리는 되어 보이는 늑대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리 전체가 성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부채꼴로 산개하며 나아오고 있었다. 그 움직임이 마치 군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쪽 측면에서 몇 마리가 더 넓게 돌아나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정찰병의 움직임 같았다.

"이렇게 대규모로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온 산의 늑대 떼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제노비오의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졌다. 성곽 바깥은 탁 트인 개활지나 다름없었다. 늑대들이 저 형태로 접근한다면 한 줄기 마법으로 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작은 주문으로 하나씩 상대하자니 숫자가 너무 많았고, 큰 주문으로 일거에 처리하려 해도 저렇게 산개된 대형에는 효율이 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었다. 적들을 한 곳에 끌어모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 성곽 아래에서 소란이 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마녀가 성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그거 참 나 마녀같은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성문을 열어서 늑대들을 이리로 불러들이려는 수작일 겁니다! 절대 열어줘선 안 됩니다!"

알레시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노비오를 쳐다보았다. 이 답 없는 놈들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줘, 라는 표정이었다.

그때 아녜스가 제노비오의 옷소매를 쿡쿡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초롱초롱 기대감에 가득 찬 눈망울이었다. 제노비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허튼짓을 한다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우와 제노씨 멋져요~☆"

"시끄러워..."

성문이 열리고 알레시아는 휘적휘적 걸음을 옮겨 성문 밖으로 나갔다.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늑대들은 멈추었다.

100마리는 되어보이는 무리가 일순 제 발을 멈추고 그 작은 인간을 주시했다. 저 두 발로 걷는 짐승이 홀몸으로 자기들 영역에 걸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혹은 그것이 무언가 함정인지 읽으려는 듯 잠시 멈칫거렸다. 무리의 좌우에서 몇 마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나머지가 다시 산개 대형을 넓혀 오기 시작했다. 이제 에워싸는 것이 목적이었다.

알레시아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걸음을 옮겨 늑대들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저런 미친..."

성벽 위에서 누군가 내뱉었다.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가 속은 거야. 저 마녀는 늑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이제 저 늑대들을 끌고 우리를 죽이러 올 거야!"

제노비오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알레시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끝에 빛의 창을 만들기 시작하려던 순간, 알레시아가 제노비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문제 하나 낼까? 내가 왜 이 북쪽의 결계를 제일 약하게 만들었을까?"

".....?"

"쉽잖아. 전부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지. 병법을 배웠을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주변이 조용해졌다. 성벽 위의 동요도, 늑대들의 으르렁거림도 잦아들었다. 알레시아의 등이 보였다. 흐트러짐이 없었다. 양손은 내려져 있었고,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무리의 가장 큰 늑대가 앞으로 나섰다. 체구가 성인 남자의 가슴팍에 닿을 만큼 큰 짐승이었다. 그것이 낮게, 아주 낮게 몸을 웅크렸다.

파문처럼 무리 전체로 그 움직임이 번졌다.

제노비오의 시야가 좁아졌다. 처음 마을로 들어오며 괴물 곰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감각이었다. 온몸의 감각이 극에 달한 초집중 상태에서 그의 시선 안에 있는 알레시아 외에 모든 것이 흐리게 밀려났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알레시아가 눈 깜짝할 사이 몸을 숙이며 땅을 짚었다.

"목생화(木生火)!"

그것이 신호가 되어 팽팽히 당겨진 시위가 끊어지듯 무리 전체가 일제히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흙에 닿은 그 손 아래에서 뭔가가 반응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꼈다. 땅속 깊이 뿌리처럼 퍼져 있는 결계의 흐름이 그녀의 손 아래에서 꿈틀거리듯 출렁였다. 자연의 기운을 끌어담아 쌓아 올린 저 드루이드의 결계가 그녀의 손끝에서 무언가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다음 찰나에 알레시아가 짧게 내뱉는 진언을 분명히 들었다.

"하늘 곧 그분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

.

.

먼저 빛이 왔다.

알레시아가 서 있는 땅 주변에 원형으로 흰 빛이 피어났다. 그 경계가 선명해지는 데 반 박자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불길이 터졌다.

폭발이었다.

풍압이 성벽까지 밀려왔다. 열기가 뒤를 이었다. 달려들던 늑대들이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바뀌어 바닥에 구르기 시작했다. 끔찍한 비명이 터졌다. 계속 달리다 쓰러지는 것들, 멈추지 못하고 서로 뒤엉키는 것들, 아무리 땅에 몸을 비벼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털과 살이 타는 냄새가 연기와 함께 성벽까지 밀려들었다.

비명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잦아들었다.

성벽 위의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연기가 천천히 걷혔다. 먼저 실루엣이 보이고, 그것이 선명해지면서 형태가 드러났다.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알레시아의 모습이었다.

제노비오는 꼼짝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저 위력, 저 정도 규모의 술식을 저 속도로 발동시킬 수 있는 자는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것이었다.

그런데.

저 진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조립된 순간, 그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어...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저렇게 큰 주문을 순식간에 발동시킬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러세요, 제노씨?"

"성당마법이잖아... 저 주문... 그것도 금지된..."

"네??"

"창세전 19장 24절... 모돗과 아로목을 멸한 불길!..."

알레시아는 제노비오의 경악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 몸을 돌려 외쳤다.

"어서 나와! 결계 수리하러 가야지!"

성지주일 — 로고스에 대하여

결계 보수 작업은 의외로 단순했다. 알레시아는 마을 북쪽의 숲의 경계를 따라 걸으며 자신이 표식해 둔 나무와 바위, 지형지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훼손되거나 힘이 다한 곳을 찾으면 잠시 멈춰 표식을 추가하거나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어 눈을 감고있다가는 곧 일어섰다. 거창한 주문이나 몸짓은 없었다. 무언가를 읽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였다. 제노비오가 알고 있는 어떤 술식과도 닮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 숲이 동쪽 산맥의 절벽과 만나는, 언덕을 따라 결계를 점검하던 구간에서 알레시아가 발을 멈추었다.

걸어온 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사각이라 보이지 않을만한 위치의 움푹한 지형으로 몇 걸음 내려가더니 거기 늘어선 것들 사이에 쭈그려 앉았다.

저주로 고사한 여느 들풀들과는 배열이 달랐다. 마른 줄기들이 꽤 넓은 면적에 걸쳐 고른 간격으로 서 있었다. 제노비오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 알레시아는 말라비틀어진 씨방 하나를 집어들어 손끝으로 돌렸다. 씨방 옆면에 나있는 칼자국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일어났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

올라오는 그녀를 제노비오는 묻지 않고 기다렸다. 방금의 행동은 결계의 표식을 점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기가 어색했다.

"이제 전부야?"

"응. 여기가 마지막이네."

알레시아는 흙이 묻은 무릎을 툭툭 털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 보이는군."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자연에 이미 있는 흐름을 활용하는 거라 억지로 힘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처음에 큰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잡아주는 게 어려울 뿐."

제노비오는 자신을 지나쳐 걸어가는 알레시아를 따라 걸으며 입을 열었다. 조금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었다.

"아까 그 주문 말이야."

"응?"

"성당마법, 창세전 19장 24절이잖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알레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기억이 시작된 후 내가 처음 완독한 책이 너희 교단의 경전이었거든."

제노비오가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

"필사가 아버지 덕에 집에 책이 많았어. 그중 제일 분량 많고 재밌는 책이 경전이었고. 다섯 살 때 그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제일 먼저 배운 마법은 성당마법인 셈이야. 진언은 원래 그냥 경전의 구절일 뿐이잖아? 어릴 때 다 외워버렸고 나중에 드루이드의 전승자 영감님한테 로고스의 흐름을 잡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야."

제노비오는 할 말을 잃었다. 알레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뭘 그렇게 충격받아? 로고스의 흐름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성당마법은 그 방법론 중 하나일 뿐이고."

"성당마법은 신의..."

"은총? 권능?"

알레시아가 피식 웃었다.

"인풋과 아웃풋만 숙달하는 거야. 이 구절을 외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원리는 몰라도 상관없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닦아온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숙달하는 순간 큰 힘을 쉽게 낼 수 있지."

"....."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자기가 쥔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왜 잘 드는지도 이해 못한 채로 휘두르는 거거든. 너희 성당마법사들이 하는짓을 보노라면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신이 나서 명검을 휘두르는 꼴과 다를 게 없어."

제노비오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한 말이 전부 틀렸다고 단언할 수가 없었다. 이때 조용히 듣고있던 아녜스가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성당마법을 배울때, 너무 빨리 배워져서 놀랐어요. 저는 그때 교리도 막 처음 배웠을 때였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거야. 난 그냥 내가 아는 바를 말한 것뿐이고. 동의해줄 필요는 없어. 솔직히 이쯤에서 내게 신성모독이라며 소리지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알레시아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걸었다.

아녜스가 그녀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어릴 때 경전을 전부 외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뭐, 그냥 재밌었거든. 그 나이에 읽기엔 무거운 내용도 많았지만 워낙 이야기가 다양해서."

"아버지가 필사가셨군요."

"응. 펜을 쥘 수 있게 된 후로는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녜스는 더 묻지 않았다. 알레시아도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그 결계를 단번에 알아본 거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드루이드들의 마법에 관해."

"어머니가 드루이드에 대해 알았다고?"

"많은 마법을 아는 분이셨어요. 그 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알레시아가 아녜스를 흘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뭔가 사연이 있겠군."

"그쪽도요."

"...그렇지."

알레시아가 짧게 웃었다. 지하감옥에서 처음 봤던 무심하고 날카로운 태도와는 어딘지 조금 다른 쓴웃음이었다.

제노비오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성당마법은 신의 은총이다. 경전의 구절에는 신의 권능이 담겨 있다. 그것이 교단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에 금이 가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눈앞에서 방금 목격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단마법사가 분명한 자가, 교단도 두려워해서 금지한 진언을, 오래전부터 손에 익혀온 도구를 꺼내 쓰듯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그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노비오는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 마을에 드리운 저주의 원천은 아직 건재하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제노비오는 굳게 입을 다물고 영주의 성곽을 향해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셋이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영주의 사용인 하나가 이들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다.

"제노비오 대장님. 찾고 있었습니다."

사용인의 얼굴에 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제노비오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브루노 신부님께서...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성지주일 — 마법이 할 수 없는것

성당은 성곽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피신해올 때 가장 먼저 머물렀을 곳이기도 했다. 납유리창 너머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뒤편의 낮은 건물, 사제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어가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다. 후드가 달린 아이보리색 성직자 로브에 가죽 허리띠를 맨 차림이 말끔했지만, 후드 아래의 연갈색 머리칼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얼굴에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어 원래는 꽤 미형이었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제노비오 일행이 다가오자 그가 성큼 걸어나왔다.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안도와 초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저는 고스마라고 합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 수도에서 복사 서품을 받고 고향에서 사목 실습 중에 있습니다. 브루노 신부님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 쯤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죄송하지만 손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노비오는 더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냄새가 먼저 왔다.

향 연기 아래 깔린 그것은 제노비오가 익히 아는 종류의 냄새였다. 전장의 막사에서, 부상자를 눕혀둔 창고에서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 살이 썩어가는 냄새였다. 향을 많이 피워두었음에도 그것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브루노 신부는 사제관 안쪽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침상 옆에 앉아 이마 위의 젖은 천을 갈아주고 있는 이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긴 흑발이 등으로 흘러내리는 소녀였다. 열댓 살쯤 되었을까. 침착한 손놀림으로 새 천을 적셔 브루노 신부의 이마에 얹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혼란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모엔. 신부님의 일행분들을 모셔왔어."

고스마가 작게 말했다. 소녀가 일행을 돌아보았다.

"오베르 집사의 따님입니다."

고스마가 제노비오에게 말했다.

"아까부터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베르 님이 최고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부탁하셔서..."

아녜스가 조심스레 침상 옆으로 다가가 나모엔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고마워. 잠깐 내가 볼게요."

나모엔이 천을 건네주고 자리를 비켰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러서면서도 눈은 브루노 신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신부의 안색이 낮에 보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이 떨리고 있었다.

"브루노 신부님."

아녜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다. 초점이 없는 눈이 아녜스를 향했다가 천장을 향했다가 했다.

"성...녀님....제노...비오..."

"여기 있습니다."

제노비오가 무릎을 꿇고 신부의 손을 잡았다. 뜨겁고 건조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레니에 신부와 티토 신부가 들어왔다.

레니에 신부의 시선이 알레시아에게 닿았다.

"이 여인은..."

"날 마녀로 몰았던 신부님들이네? 반가워."

"어째서 이 여인이 여기에..."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이교도이기는 하나 이 영지를 도우려는 마음은 저희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엔 한 사람의 손이 아쉬움을 이해해주십시오."

제노비오가 짧게 잘랐다. 레니에 신부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거두지 않았다.

알레시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딱히 다른 종교를 믿는건 아닌데. 이교도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걸."

"...무신론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난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 신이 없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좀 짜증나는 인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음, 그나마 제일 팩트에 기반한 설명이긴 하네. 여전히 맘에 드는 서술은 아니지만."

두 신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럴 땐 무슨 표정을 지어야할 지 모르겠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녜스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노비오의 옷자락을 툭툭 잡아당겼다.

"...실례했습니다. 일단 이 여자의 처우는 당분간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보다 상태가 위중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브루노 신부님의 상태를 설명해주십시오."

보좌신부 티토가 침상 옆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다.

"낮에 처음 이곳으로 모셨을 땐 그나마 의식도 있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녁 기도 종이 울릴 무렵부터 갑자기 열이 치솟더니..."

"이렇게 되셨다는 거로군요."

"뭐가 문제였던걸까요?"

"배..."

나모엔의 작은 목소리에 방의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가 부풀어 있어요."

티토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담요 위로 시선을 내렸다. 이불 위로도 드러날 만큼 복부가 팽팽하게 불어 있었다. 티토의 표정이 굳었다.

"아까 전 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모엔이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피도 나왔어요."

방 안의 시선이 다시 소녀에게 쏠렸다.

"두 번째 갈아드릴 때 보였는데요... 혈변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모엔은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침상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알레시아가 침상 옆으로 다가섰다.

레니에 신부가 반사적으로 몸을 가로막았다.

"뭘 하려는 겁니까?"

"상태를 보려는 것 뿐이야."

"그건 알겠지만 당신은 교단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단마법..."

"레니에 신부님."

제노비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레니에 신부가 멈추었다.

"잠시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레니에 신부의 입술이 굳게 닫히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일단은 물러서기를 택했다.

알레시아는 그 긴장감을 의식하지도 않는 듯 침상 옆에 자리를 잡았다. 손목에 손가락을 얹어 맥을 짚고 눈꺼풀을 가볍게 들어 눈동자를 확인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나모엔을 보았다.

"혈변이 처음 나온 게 언제야?"

나모엔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 시간쯤 됐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건?"

"그보다 앞이에요. 두 시간쯤 전부터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고, 한 시간 전부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건?"

"아까 천을 갈다가 손이 닿았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알레시아가 소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뭔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잘 봤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알레시아는 다시 브루노 신부에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담요를 걷어냈다. 브루노 신부의 옷 위로 손을 얹어 복부 오른쪽 아래를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렀다.

"으아아악!"

반의식 상태였던 브루노 신부가 번쩍 눈을 뜨며 몸을 비틀었다. 고스마가 놀라 달려들어 브루노 신부의 팔을 잡았다. 알레시아는 가볍게 손을 거두며 일어섰다.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야?"

제노비오가 물었다.

"마법으로 상처를 지혈했지? 성당마법의 치유마법으로. 외상은 빠르게 닫혔겠지만 문제는 그 안이야."

알레시아는 침상 발치 쪽으로 돌아가며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 너희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잖아? 천구백년 전의 선지자, 하느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한 그가 일으킨 기적들도 대부분이 병을 고치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이었고."

"그랬지. 그런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건데?"

"지금 전해지는 성당마법들은 분명 그에게서 비롯된 것일진대 어째서 전쟁에서나 유용할법한 마법들이 그리도 많을까? 왜 치유마법의 사용을 그토록 제한하는걸까?"

제노비오는 입술을 깨물었다. 실제로 그랬다. 성당마법의 치유마법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허용되고 있었다.

"베란티아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딸린 첫 치료소가 문을 열었을 때의 일이지. 분명히 마법으로 상처가 낫고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른 이상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일이 속출했어. 심하면 죽기도 했고. 결국 교회의 치료소 제도는 얼마 안가 폐지되었지."

제노비오는 알레시아의 말을 들으며 금지되는 마법과 제한되는 마법에 대한 수업을 듣던 때를 떠올렸다. 대규모의 파괴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금지마법들은 그 금지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용되는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는 마법 중 치유마법이 있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구세주의 기적을 함부로 재현하려는 자에게는 벌이 내린다는 모호한 교단의 설명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알레시아가 말하는 왕국 초창기의 역사 기록이었다.

"그 마법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거야. 아마 사람의 아들이 세운 마법 체계를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제자들이 이어받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거나 왜곡되었을거라고 생각해. 각종 기록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일으킨 기적은 진짜였고 완전한 치유마법이었던 것 같으니."

알레시아가 나모엔을 잠깐 보았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신부님의 몸 안 어딘가가 완전히 낫지 않은 거야."

침묵이 흘렀다. 제노비오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다. 치유마법이 불완전하다는것은 곧 그 진언인 경전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가르침 또한 틀리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단은 이 사실을 인정할리가 없다. 그러기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죽더라도 치료가 늦은것인지 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한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환자만 치료하도록 제한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때 레니에 신부가 조용히, 그러나 차갑게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이 여인이 정확히 무슨 자격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성당마법이 이렇다저렇다 하며 주님의 은총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가 더이상 이리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레니에 신부님."

티토 보좌신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레니에 신부가 돌아보았다.

"저도 방법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계속 드렸지만..."

티토 신부는 말을 맺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레니에 신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노비오를 보았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노비오는 브루노 신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열에 들뜬 눈꺼풀 아래로 눈알이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알레시아."

"응."

"이대로라면... 돌아가시겠지?"

"응."

"신부님을 살릴 수 있어?"

알레시아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부탁한다면. 시도해볼 순 있지."

"살려낼 수 있는 확률은?"

"반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마법을 알고있나?"

"그릇을 깨트리기는 쉽지만 그것을 원래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은 아쉽게도 없어. 봉합된 상처를 다시 열어서 안에 고인 독기를 빼낼거야. 그 다음은 상처를 소독하고 내가 가진 약을 쓸거고. 참고로 꽤 귀한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의 남은 생명력이 결정하겠지."

제노비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탁한다."

"결정 빠르네. 내 가방을 가져다줘. 그리고 나모엔?"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화로에 물을 끓여 줘. 펄펄 끓여야 해. 그리고 깨끗한 천과 피고름을 받을 그릇도."

나모엔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아무 말 없이.

"고스마와 아녜스."

"예?"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고스마가 눈을 크게 떴다. 아녜스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브루노 신부의 양쪽 어깨를 잡아줄 수 있어? 시작되면 몸부림칠 거야."

. . .

알레시아가 여행 배낭의 끈을 풀며 말했다.

"레니에 신부님."

레니에 신부가 알레시아를 돌아보았다.

"조금 전의 무례는 용서해 주시길. 신을 모독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성당에서 기도를 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공기가 탁해져 곤란하고, 여기는 저희 일행과 고스마, 나모엔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의도적으로 쫓아내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었다. 레니에 신부는 잠시 말 없이 알레시아를 바라보다가, 티토와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세."

"예, 신부님."

두 사람은 방에서 나갔다.

알레시아의 배낭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왔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작은 칼 서너 자루, 가죽 주머니에 나뉘어 담긴 각종 분말과 환약들, 기름 먹인 천, 바늘과 실.

"이게 다... 뭔가요?"

고스마가 중얼거렸다.

알레시아는 대답하지 않고 칼 하나를 골라 등잔의 불꽃에 천천히 달구었다. 그러더니 다른 도구들을 차례로 끓는 물에 담갔다.

제노비오가 물었다.

"왜 끓는 물에 담그는 거야?"

"영감님한테 배운 방식이야.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는 독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어."

원리를 모른다는 말이 어딘지 솔직했다. 경험으로 효과를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이다.

의심을 하는 대신 제노비오는 오히려 그녀에게 어딘지 믿음이 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 환약 두 알을."

알레시아가 갈색 환약을 꺼내 나모엔에게 건넸다.

"신부님 입에 물이랑 같이 넣어줘."

"의식이 흐리셔서 삼키실 수 있을지..."

"삼키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이야 항문으로 밀어넣어."

나모엔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듯 했다. 고스마가 그것을 보더니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다. 다행히 브루노 신부는 약을 삼켰기 때문에 우려하던 최후의 수단을 감행할 필요는 없었다.

"제노비오, 발쪽을 잡아줘. 둘은 어깨."

제노비오는 침상 발치로 이동해 브루노 신부의 발목 위에 손을 얹었다. 고스마와 아녜스가 어깨를 한쪽씩 맡아 눌렀다. 나모엔은 알레시아의 지시대로 커다란 접시를 받쳐들고 그녀의 옆에 섰다.

알레시아는 브루노 신부의 옷을 걷어올리고 붕대를 풀었다. 봉합된 상처 자리가 드러났다. 주변 피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상처 가장자리는 검붉은 빛이 돌고 있었다.

"...후"

알레시아가 작게 심호흡을 했다.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칼을 들었다.

브루노 신부는 직전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절개가 시작되자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는 것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노비오와 아녜스와 고스마가 전신으로 그를 눌렀다. 고스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나모엔이 받쳐든 접시 위로 역한 냄새를 뿜는 피고름이 쏟아져나왔다.

"모두 잠시 숨을 참아."

탁자 위의 작은 유리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알레시아가 천에 액체를 적셔 상처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브루노 신부의 신음이 다시 터졌다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제 내쉬어. 깊게."

방 안 사람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따랐다.

.

.

.

한 시간쯤 지났을까.

"열이... 조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고스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모엔이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녜스가 브루노 신부의 손을 잡았다. 아까보다 손바닥이 덜 달아 있었다. 숨결도 조금 고르게 들렸다. 배의 긴장도 아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고스마는 벽에 기대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다. 아까부터 얼굴이 많이 창백해져 있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었다.

제노비오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도감이 드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왜 몰랐을까.

치유마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것은 맞다. 출혈이 멎고 살이 붙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알레시아가 설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안쪽에서 썩어가는 상처. 겉보기에 좋게 빠르게 막아버린것이 오히려 독기를 몸 속에 가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내면의 원리를 몰랐기에 벌어진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고치는 법만 알고 있었다. 성당마법은 불완전한 것이 맞았다.

알레시아가 배낭을 다시 꾸리며 제노비오 옆으로 와 벽에 기댔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

"당신 덕분에."

"아직 살았다고 하기엔 이르지. 이틀은 더 봐야 하고, 열이 다시 오르면 또 손을 봐야 해."

"나모엔한테 맡겨도 될까."

알레시아가 소녀를 흘끗 보았다. 나모엔은 조용히 브루노 신부의 이마 위 천을 갈아주고 있었다.

"응. 저 애는 잘 할 거야. 눈이 좋아."

"열일곱 살이라던데."

"눈이 좋다는 건 나이 얘기가 아니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제노비오는 다시 물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것들."

"드루이드 영감님한테. 그 영감님이 의사 노릇을 하며 돌아다녔거든. 마법보다 이런 걸 더 많이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어릴 때 읽은 의학서도 도움이 됐고."

"어릴 때 의학서를?"

"이해는 나중에 됐어. 그 땐 읽었을 뿐이고."

제노비오는 허탈하게 피식 웃었다. 알레시아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웃어."

"당신한테 제대로 된 칭찬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보다 밥이 더 좋아. 아까 닭고기 스튜보다 맛있는게 먹고 싶은데."

고스마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나왔다가, 얼른 표정을 수습했다. 아녜스는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웃었다. 나모엔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천을 갈고 있었다.

제노비오는 다시 브루노 신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의 붉은 기가 조금 옅어져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긴 했지만 더 이상 싸우는 것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조반니 수사는 죽었다. 데려온 병력은 전멸했다. 한명 한명이 모두 공을 세워보겠다고 제노비오를 믿고 따라나선 이들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많은 이들의 목숨을 허무하게 잃어본 적이 없었다. 브루노 신부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성당마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붉은 머리의 여자가 그 빈자리를 태연하게 채우고, 열일곱 살 소녀가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의 이마를 식히고 있다.

밀렸던 피로가 엄습하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